

# 남원에서 문화전문인 '꾼' 이 되어보자

### 오는 3월부터 9월까지 6개 양성교육 과정 운영

남원시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는 2016년 문화도시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꾼'을 3월부터 추진한다.

'꾼' 프로젝트는 전국의 전문문화예술 단체가 남원시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 시민이 문화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교육과정이다.

지난 2014년 11월부터 5월까지 1차로 9개 과정, 2015년 7월부터 10월까지 2차로 9개 과정을 운영하였고 올해 2016년에는 3월부터 9월까지 6개 과정을 운영한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운영된 '꾼'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특히, '춤추는 남원 사람의 춤 배우기' 과정을 통해 2015년도 춘향제에 남원춤을 선보이며 큰 호응을 받았고, '설치조형예술(南光)'을 통해 2015년 대한민국공공디자인대상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남원이야기 그림책 제작교육'을 통해 남원에 담긴 자신의 이야기가 출판물로 등재되었다.

올해 편사업의 특징은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사업기간이 두배로 길어졌다는 점이다.

또한 기존 문화예술관련 실습형 교육 '꾼'을 '꾼'과 '이카데미'로 세분화하여 3월부터는 새로운문화예술콘텐츠 기획

에 의한 시범프로그램 '꾼' 6개 프로그램을 4월부터는 시민체합·실습형으로 이루어지는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도시문화이카데미' 3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지난 2월 접수를 마감하고 최종 심사에서 선발된 6개 단체는 최근 워크숍을 가지고 3월부터 각 운영단체별로 접수를 받고 있다.

3월부터 접수받고 운영될 프로그램은 「시민이 만들어가는 영상박물관 남원 시즌3 <시민도슨트>」, 「지역문화예술교육 기획자 양성」, 「게릴라 뮤지컬 콘서트 <남원에 반하다>」, 「타악 퍼포먼스 교육」, 「2016 '흥'이 '뭉'트다」, 「압화공예 체험강사양성」 등 총 6개 과정이다.

이 중 「시민이 만들어가는 영상박물관 남원 시즌3」은 2015년도에 큰 호응으로 운영되었던 프로그램으로 시민이 우리 동네이야기를 스마트폰으로 직접 촬영하고 편집하여 시민을 우리 동네 도슨트 로 양성하는 과정으로 기초과정과 고급 과정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남원을 소재로 한 「게릴라 뮤지컬콘서트 <남원에 반하다>」는 프예예술가와 아마추어예술가의 합동 공연을 통하여 전문영역인 뮤지컬을 축제등을 통하여 대중이 접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지역 연극인들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남원 '꾼' 프로젝트는 체험기회가 부족한 연극공연 제작과정 전반에 시민이 참여한다.

남원의 연극 수준을 높이며, 체험기회가 부족한 연극공연 제작과정 전반에 시민이 참여하여 시민과 함께 공연을 만들어 가는 「'흥'이 '뭉'트다」는 연극무대에 서게 되는 기회를 만들게 된다.

또한 지역 스토리텔링 및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지역문화예술교육 기획자 양성 과정」과 동호회 중심의 중장년층이 배우고 있는 「타악」과 같은 타악기를 젊은층과 함께 접하기 위하여 전문강사와 함께 하는 「타악 퍼포먼스 교육」, 남원시 허브산업과 연계하여 이주 여성의 문화 체험을 위한 「압화공예 체험강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시민들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남원을 주제로 한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시범운영하는 '꾼'은 올해 5월 춘향제에서 중간발표를 통하여 대중에게 선보이고 사업이 완료되는 10월 축제와 함께 결과물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남원을 소재로한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받아들이는 '꾼'이 남원의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지난해 '꾼'에 대한 많은 관심이 감사드리고 올해에 운영되는 6개 프로그램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남원=유영철기자



## 완주군, 비콘으로 스마트 관광

### 사물인터넷 장치로 전시공간 무료로 소개

완주군이 도내 최초 비콘 설치로 스마트한 문화 관광 및 최적화 정보 제공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군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삼례문화예술촌과 슬데마박물관에 전시 공간을 소개하는 비콘과 공공 와이파이 등 최신의 정보통신 기술(CT)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비콘은 저전력 근거리 무선통신인 블루투스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과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사물인터넷(IoT) 장치이며, 공공 와이파이)는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내방객에게 별도의 데이터 요금 부과 없이 무료로 제공하는 무선인터넷 서비스이다.

삼례문화예술촌과 슬데마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의 스마트폰에 앱이 설치되면 시설 내 길 찾기가 수월해지고 안내원이 없더라도 추천 관람 동선과 전시관 홍보내용, 시설 배치도, 관람시간, 프로그램 등을 안내 받게 된다.

또한 청사를 처음 방문하거나 부서 담당업무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 각 층별로 비콘을 설치하여 찾아가는 스마트 행정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민원인은 균형 방문 시 가이드 앱을 다운 받으면, 주요 업무 키워드나 사무실 배치도를 통하여 대표홈페이지와 연동되는 부서별 업무안내, 직원안내 콘텐츠를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3월 4일까지 청사와 삼례문화예술촌, 슬데마박물관 3개소에 29개의 비콘을 설치하며, 삼례문화예술촌과 슬데마박물관 13개소에 기가(Giga) 와이파이와 LTE 에그를 설치한다.

/완주=이종복 기자



## 창작음악그룹 '더튼(the튼)'

### 첫 앨범 '길가락 유랑' 발매

창작음악그룹 '더튼(the튼)'의 첫 번째 정규앨범 '길가락 유랑'이 3일 발매됐다. '길가락 유랑'은 전통을 소재로 펼쳐서 펼쳐진 인간의 삶을 유랑하며 만난 인상적인 순간을 음악으로 이야기하는 창작음악 레퍼토리다. 2013년 처음 발표한 더튼의 첫 레퍼토리 중 2014년 전주세계소리축제와 지난해 서울국제뮤지컬페스티벌을 통해 꾸준히 사랑을 받은 음악을 중심으로 재구성해 제작했다.

더튼은 전통 타악기·해금·보컬·건반·퍼커션으로 구성된 4인 그룹이다. 전통에 자신의 색을 입혀 실험적인 창작음악을 선보이는 팀이다. 국악기, 중용악기, 건반 등 어수룩한 소리의 조합으로 국악, 재즈, 컨템포러리, 집시음악 등 장르를 넘나들며 경계 없는 음악을 만들고 있다.

/정해은 기자

## 문체부 '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

### 저작권 보호 및 이용자 편의 제공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음악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서는 저작권보호센터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보호기능을 통합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 효율적으로 저작권 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2014년 합법제작물 시장 침해규모가 2조 2978억원에 이르고 불법복제물로 인한 생산 감소가 3조 6532억 원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을 통해 창조경제의 근간이 되는 저작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저작권보호업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가 나누어 수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저작권 보호체계 이원화에 따른 업무 중복과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음반'의 정의의 명확화를 통해 시장 혼란이 해소될 전망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대영매장 등 일부 영업장을 제외한 곳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음악 유통 방식이 변화하면서 영업장에서 음반 재생 시 사용료 등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용 음반'을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상업용 음반)'으로 수정하고, 디지털로 음악이 소비되는 환경 변화를 반영해 '음반'에 디지털 음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했다. 또한 통합징수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음반을 이용할 경우, 현재는 이용자가 음악 관련 4개 단체에 각각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권리자와 이용자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4개 단체의 사용료 등을 통합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도록 하였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디지털 시대에서의 저작권 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음악 등 저작물 이용의 편의를 제고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저작권자의 권리 증진과 편리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 게임 등 콘텐츠 취준생 기회

### 미니잡페어 11일 현장 채용

콘텐츠 벤처·스타트업 분야 인재육성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미니 잡페어 벤처·스타트업'이 오는 11일 서울 중구 문화창조벤처단지에서 열린다.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원장 송성각)과 청년희망재단(이사장 황철주)이 마련한 이 행사는 ▲전문 취업컨설턴트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컨설팅 진로 및 직무상담 등을 받을 수 있는 '취업컨설팅' ▲취업준비생과 기업이 행사 당일 현장에서 채용 면접을 실시하는 '잡매칭 프로그램'으로 편된다.

특히 잡매칭 프로그램에는 ▲직포 ▲500비디오스 ▲CNBOX ▲고든미디어 ▲엠랩 ▲(주)메트로그래프 ▲코자자 등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을 받은 30여 개의 유망벤처·스타트업이 참가해 현장 면접 및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박경자 이카데미본부장은 "청년희망재단과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일자리 창출과 창조 효과에 시너지를 가져올 것"이라며 "콘텐츠코리아랩, 문화창조벤처단지, 문화창조아카데미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새로운 콘텐츠 스타트업 육성과 발굴을 위해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 휴과 불과 예술 함께하는 남원시민도예대학 개강식

남원시민도예대학 상반기 개강식이 3일 오전 11시에 춘향테마파크 내 남원시민도예대학에서 70여명의 수강생이 참석한 가운데 개강식을 가졌다. 시민들의 힐링과 문화활동을 위하여 기초, 실기, 응용반으로 구성된 이번 과정은 3월 3일부터 6월 17일까지 총 16주동안 진행된다.

남원시민도예대학은 4명의 강사진으로 기초과정은 도예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을 중심으로, 실기와 응용 과정은 전기 물레를 활용한 도자기 실습으로 각각 진행되며, 수강생들은 단계별 학습과정을 통해 생활 도예인으로서 그 기술을 익히게 된다.

1998년에 설립된 남원시민도예대학은 33기에 걸쳐 지금까지 1,65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여 도예인의 저변확대 및 도예문화 부흥에 기여하였다.

이환주 남원시장(남원시민도예대학장)은 휴과 불과 예술, 우리의 자랑이며, 문화역량을 높이고 명실공히 도자기 고강의 원류로써, 남원도예에 문화도시로 융성할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하나되어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 피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slab.com/

<2016년 3월 4일>

**▷쥐띠**  
46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운.  
60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으니 매사 예민하게 받아들이 수 있으니 주의하라.  
72년생: 인척이 따르는 운.  
84년생: 뜻밖의 수확이 있으니 최선을 다해 전진하고 포기하지 마라.

**▷소띠**  
46년생: 영성이 뚜렷하지 않아 실수등 범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  
61년생: 편법을 사용하면 주변에 알려지게 되니 정당한 방법으로 행하라.  
73년생: 구실수와 시비가 따르는 운.  
85년생: 작은 일은 성취 가능하나 조심스럽게 진행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호랑이띠**  
50년생: 하고자 하는일이 있다면 매사 일찍 움직여라.  
62년생: 온건은 삼가고 가급적 행해도 삼가는 것이 좋겠다.  
74년생: 동기끼리나 경쟁자로 인해 신경을 많이 쓸생한다. 무시하지 않으면 시비가 따르니 주의하라.  
86년생: 정신적으로도 편안하지 않고 육체적으로도 좋지 않은 운.

**▷토끼띠**  
51년생: 운사로 인한 금전지출은 음수나 다른 투자나 투기는 삼가는 것이 좋은 운이다.  
67년생: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일이 생길다.  
75년생: 금전적으로 이득이 따르는 운.  
87년생: 구실수가 따르니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용띠**  
52년생: 이미 정해져 있던 것이니 미련을 버려라.  
66년생: 쥐띠와 화합하여 진행하면 좋은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78년생: 어려움이 있어도 도와줄 사람이 나타난다.  
88년생: 상황이 따라 개선하는 지체가 필요하리라.

**▷범띠**  
53년생: 타인과의 화합에 좋은 운이다.  
65년생: 김정어 처우처럼 일을 그르치게 되니 매사 온 냉정하게 처리하라.  
77년생: 지나간 일들로 인해 곤경에 처할 수 있다.  
89년생: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심대를 믿지 마라.

**▷말띠**  
54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될 수 있는 언행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겠다.  
68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주위에 손을 내밀어라.  
76년생: 다른 사람에게 경쟁심과 적대감을 느끼는 운.  
90년생: 미워했던 중부를 시작하기에 아주 좋은 운.

**▷양띠**  
56년생: 금전적으로 기운이 좋은 운.  
67년생: 시소한 일에 시비나 거는 사람이 생기니 마음을 다스리고 충돌하지 말아야 하겠다.  
79년생: 금전적으로 손재수가 따르니 무리한 투자는 금하라.  
91년생: 순릿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쉽게 해결될 것이다.

**▷원숭이띠**  
55년생: 손이래 사람에게 도움 받을 일이 생기니 권위적인 언행은 오히려 부정적인 상황을 만든다.  
69년생: 물디라도 두들겨 보면서 건너야 할 때.  
80년생: 좋은 일하고 할 말 있는.  
92년생: 건강이 좋지 않은 운이니 원형은 삼가는 것이 좋겠다.

**▷닭띠**  
57년생: 뒤로 물러서서 자리를 지켜라.  
69년생: 먼저 손해 보면 후에 이득을 얻게 되니 커피리도 대칭하라.  
81년생: 미워했던 문서 정리나 문서부 주고받기에 좋은 운이다.  
93년생: 생각하지 못했던 실수등 범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

**▷개띠**  
49년생: 실속이 없으니 내심을 다지는것에 신경써라.  
59년생: 지출이 심해지는 운이다.  
70년생: 모든일을 혼자서 감내해야 하니 좋은 결실을 맺는다.  
82년생: 이성과 함께 일을 도모하기에는 음수나 오해해 사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돼지띠**  
47년생: 가족들의 불화가 생기는 때이다.  
59년생: 베풀면 좋은 일이 생긴다.  
71년생: 여성은 말없는 다니면 풀림일이 발생하나 다른사람과 동행하거나 일찍 귀가하는것이 상책이다.  
83년생: 여성은 남성으로 인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